

전남대학교 상반기 성적표 '합격점'

특성화 사업·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등 상위권

기초연구사업 수주 '두각'... 유지취업률 1위 취업 질적 향상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가 정부 지원 사업과 국내외 평가, 연구비 수주, 취업의 양적·질적 수준 등 2014년 상반기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지병문 총장 취임 이후 추구해온 '잘 가르치고, 연구 잘 하고, 취업 잘 시키는 대학'이라는 목표가 서서히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성과=대표적인 것이 대학특성화사업이다. 전남대는 지난 6월말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서 10개 신청 사업단 중 7개가 선정돼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오는 2018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연간 59억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특성화사업을 벌이게 됐다.

또 6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지원 대상 대학에 선정됐다. 지원

액 17억6000만원을 받게 돼 전국 65개 지원대상 대학 중 경희대·중앙대·한양대(이상 30억원)·서울대(20억원)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앞서 5월에 발표된 '2단계 산학협력 선도 대학 지원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86개 대학에 기술혁신형으로 재선정됐다. 전남대는 경북대·부산대 등 지역 거점국립대들과 함께 기술혁신형 2단계 사업에 다시 선정돼 3년간 13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국내·외 각종 평가 및 국제 연구비 수주 '두각'=지난 5월 발표된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에서 정보통신 분야 최우수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가 경제 5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이 평가에서 전남대는 경북대·광운대·한양대·한국항공대·한국기술교육대·영남대·동서대 등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

종합 최우수대학에 뽑혔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인증대학으로 선정됐으며, 교육부의 2014년도 국립대학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평가 역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창의·도전적 기초 연구 진흥 및 우수 연구자 집중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기초연구사업 수주실적이 먼저 눈에 띈다. 전남대는 올 상반기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사업 선정에서 총 71개 과제, 33억441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연구비 총액으로는 116%, 과제 건수로는 69%가 증가했다.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는 '서남해 연안환경의 과거 극한기후 추적과 예측연구' 사업을 유지했다. 향후 5년간 22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제 프로젝트로 지난 1

만년 동안의 서남해안 극한기후사건을 추적·연구·예측하는 연구이다. '호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유치도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환경공학부 해양토목공학 전공 김영상 교수가 유치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76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며, '해안·도시지역 기후재해 적응형 건설적정기술'이라는 특성과 주제를 연구하게 된다.

◇취업의 질적인 향상=지난해말부터 3개월 단위로 발표되는 '유지취업률'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업한 대졸자들이 9개월 후인 올 3월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지취업률(7월1일 발표) 조사 결과 전남대는 81.5%로 광주·전남과 전북 지역의 졸업생 1000명 이상 4년제 대학(47개)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조사(2013년 12월말 기준)에서도 86.3%의 유지취업률로 호남권 대학 1위를 기록했다.

유지취업률이란 취업한 졸업생이 일정 기간 후에도 해당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대학별 취업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대부중 이재연 교장이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조대부중 제공)

“등교 하면서 서로가 인사하니 소통 저절로... 고민까지 털어놔요”

조대부중 이재연 교장 부임후 학생과 담 허물기 화제

한 중학교 교장이 부임 이후 10개월 동안 꾸준히 학생들에게 등교 인사를 하고 있어 화제다. 최근에는 학생회까지 등교 인사에 동참하고 있다.

21일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재연 교장이 부임한 후 학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일 오전 7시30분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이 교장의 등교 인사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인사가 향상되고, 고민 상담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교장과 학생의 '담'도 허물어졌다.

이 교장 부임 이후 학교폭력도 크게 줄었다.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6건(담임 종결 사안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사안 합산)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

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등교인사를 하는 이 교장 앞에서 배운 터지킴이 교사는 교통 안전,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지도 등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규칙 준수율도 높아졌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기에 너무 덥다”는 의견을 내자 교사·학부모·학생 간 논의를 거쳐 학생들이 하복과 생활복을 자유롭게 입도록 결정하는 등 학교 내의 사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 교장은 “어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값진 교육”이라며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에 힘써 준 동료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 과다 사용 '치유학교' 열렸다

강진 다산수련원 내달 1일까지 가족상담 등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다사용을 치유하는 학교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문기전)는 다음달 1일까지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치유학교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치유학교는 인터넷 과다 사용 남자 중학생 25명이 참가해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체험활동, 가족캠프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들은 11박12일일간 다산수련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여가 활동을 한다. 또 캠프가 끝나고 3개월간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 치유학교를 운영해 높은 만족도와 사후관리를 통해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를 해결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62-226-8181, 062-13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야기가 있는 풍경’ 그렸어요”

전남대 사대부중 학생들

복도·계단 벽화 전시 눈길

평상시 어두웠던 복도가 갤러리로 변했다. 누렇게 얼룩지고 곳곳의 페인트 칠이 벗겨졌던 건물 벽면과 계단 옆면에는 동화나라 같은 벽화가 자리잡았다.

전남대사범대학부설중학교(교장 김현중)는 오는 9월 5일까지 복도에 학생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2014 사대부중 학생 특별전'을 갖는다. 이 특별전은 숨을 쉬듯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야기가 있는 풍경 'Gallery 숲'으로 주제를 잡았다.

이번 전시회는 1학기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학교 밖 갤러리가 아닌 학교 안 갤러리에 한데 모아, 학생들이 쉽게 작품을 감상하면서 예술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시회에 출품한 3학년 한 학생은 “화가 작품도 아닌 데... 수업시간에 제작한 내 작품이 전시된 것을 보니 너무 신기하고 기뻐요”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013 명화가 숨쉬는 학교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새롭게 추진한 벽화그리기 작업인 '2014 즐거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끌고 있다. 계



계단 옆면을 '자작나무 숲' 벽화로 꾸민 학생들이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단 옆 벽면이 숲이 되고, 세계를 품은 즐거운 학교로 다시 태어나면서 보는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토·일요일을 쉬지 않고 벽화 활동에 참여한 전대사대부중 “빨주노초파남보” 제2기 학생들은 지난 19·20일 이틀동안 엠마우스복지관에 벽화를 제작하는 봉사활동

을 펼치기도 했다.

김현중 교장은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만든 벽화가 학생의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 학생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강대 응급구조과

소방공무원 산실

올 상반기 6명 합격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 응급구조과가 올 상반기 실시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에서 6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이번 시험에서 동강대 졸업생중 김상철(강원), 김원진(인천), 김태의(인천), 문예진(광주) 박광수(충남), 서동선(인천)씨 등 6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난 2006년 3년제 과정으로 개설된 응급구조과는 2009년 첫 졸업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0여 명의 학생을 배출했다.

신설학과임에도 2012년 3명, 2013년 8명, 올 상반기 6명 등 매년 졸업생의 10~20%가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소방직 공무원 배출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높은 합격률은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공교수들이 학과에 포진해 실무밀착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교수제 활성화로 1학년 때부터 진로 방향을 확고히 설정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가입문의 1855-0000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UHD 24h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UHD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헬로tv UHD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지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지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 1588-3366)

www.cjhellovision.com